

# Johannes Brahms

(1833-1897)

요하네스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 Op. 77 (1878)

요하네스 브람스의 완전무결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해함에 있어 작곡가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교육자로 활약했던 19세기의 빛나는 거장, 헝가리 출신의 요제프 요아힘 (Joseph Joachim, 1831-1907)이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 계보상 독일악파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로 본 작품의 탄생과 보급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찍이 젊은 브람스의 재능을 눈여겨보았던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Eduard Reményi)는 브람스를 요아힘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이는 1853년 하노버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브람스는 20세, 요아힘은 22세였다. 이후 이들의 친분은 지속되어 평생 친구가 되었고 서로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편 요아힘의 주선으로 1853년 뒤셀도르프의 슈만 자택에서 브람스는 로베르트와 클라라 슈만 부부와 만나게 되고, 이는 브람스의 음악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1878년 8월 잘츠부르크의 요아힘은 브람스로부터 여러 바이올린 악절이 담긴 편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본 작품의 작곡에 착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브람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때 요아힘에게 자문을 구했고 요아힘 역시 많은 조언을 주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요아힘이 1879년 1월 1일로 초연 날짜를 정한 것인데, 본디부터 신중한 성격의 브람스에게 이 제안은 탐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4악장으로 구상했던 협주곡은 최종 3악장으로 완성된다(이때 포기한 스케르초는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 활용한다). 따라서 본 작품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여 무려 23년의 작곡기간을 거쳐 불혹을 넘긴 1876년 발표한 교향곡 1번, 작곡에 착수한지 불과 석 달 만인 1877년 완성하여 그 해 초연한 교향곡 2번 등에 이어지는 곡이라 할 수 있다. 초연은 예정대로 신년 첫 날에 열렸으며 미리 카덴차까지 작곡해 두었던 요아힘의 바이올린에 브람스의 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다. 하지만 초연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은 않았는데, 화려한 비르투오소였던 파블로 데 사라사테, 지휘계의 거장 한스 폰 뷔로,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가였던 헨릭 비에니아프스키 등은 곡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후에도 브람스의 수정은 계속되었고 최종판의 인쇄는 1879년 짐록(Simrock) 출판사에서 이루어진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본 작품의 유사성을 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D장조, 전체 연주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장대한 1악장, 서정성 넘치는 2악장, 론도 형식의 경쾌한 3악장 등 닮은 외형 외에도, 두 교향악적인 협주곡에서 독주자와 오케스트라는 대등한 입장을 취하며 융화를 이룬다는 점, 독주자에게 모든 악장을 완주할 만한 뛰어난 기량이 필요하다는 점, 이에 더해 천재적 영감과 불굴의 노력에 의해 작곡된 두 작품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독주자의 정신적인 깊이와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